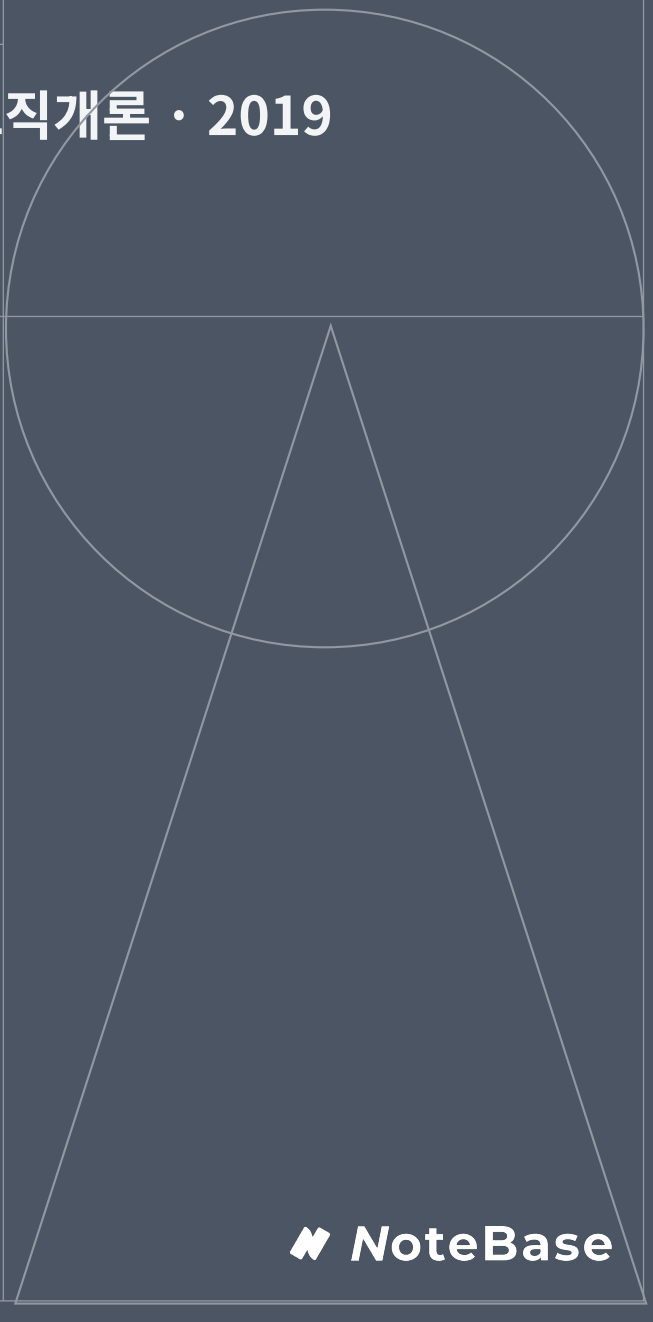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지방직/9급 · 자료조직개론 · 2019



NoteBas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지방직/9급 · 자료조직개론 · 2019

공무원/지방직/9급 · 자료조직개론 · 2019

문 1. KDC 제6판 300(사회과학)의 하위주제에 해당하는 것은?

① 국가 및 정치윤리

② 발달심리학

③ 예절

④ 가정관리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예절은 KDC 제6판에서 **385**에 배정되어, 380(풍습, 예절, 민속학)을 거쳐 **300(사회과학)**에 속한다.

선지별 해설

KDC는 주제를 계층적으로 구분하며, 300(사회과학)의 하위주제는 300번대에 배정된다. 각 후보가 분류표에서 어느 상위주제에 놓이는지 확인해야 한다.

① X: 국가 및 정치윤리는 193으로, 190(윤리학, 도덕철학)의 하위주제이다. '국가'나 '정치'라는 말이 들어 있어도 정치학으로 분류하는 것이 아니라 **100(철학)**에 속한다.

② X: 발달심리학은 183으로, 180(심리학)의 하위주제이다. KDC에서는 심리학을 **100(철학)** 아래에 두므로 300(사회과학)의 하위주제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O: 예절은 385로, **300(사회과학) → 380(풍습, 예절, 민속학) → 385(예절)**의 계층에 놓인다. 따라서 사회과학의 하위주제에 해당한다.

④ X: 가정관리는 591(가정관리 및 가정생활)에 해당하며, 590(생활과학)의 하위주제이다. 가정생활의 관리에 관한 주제로서 **500(기술과학)**에 속한다.

NoteBase

문 2. KDC 제6판을 적용하여 일본의 현대소설 『낯선 나날들: 무라카미류의 장편소설』을 분류할 때, 조합과정과 분류기호가 옳은 것은?

① 830(일본문학) + -3(문학형식: 소설) + -6(시대: 현대) → 833.6

② 830(일본문학) + -3(문학형식: 소설) + -6(시대: 현대) → 830.36

③ 830(일본문학) + -6(시대: 현대) + -3(문학형식: 소설) → 836.3

④ 830(일본문학) + -6(시대: 현대) + -3(문학형식: 소설) → 830.63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일본문학의 기본기호 830에 **문학형식인 소설을 먼저** 적용하면 833이 되고, 여기에 현대를 나타내는 6을 붙이면 833.6이 된다. 소설의 기호 3은 830의 끝자리 0을 대신하므로 830.36으로 쓰지 않는다.

구성 요소별 해설

일본문학(830): KDC 제6판의 문학류는 언어에 따른 문학 구분에 문학형식과 시대를 차례로 적용한다. 이 자료는 일본의 소설이므로 일본문학의 기본기호 830에서 출발한다.

문학형식: 소설(-3): 소설을 나타내는 문학형식 기호는 3이다. 이 기호를 **830의 끝자리 0을 대신하는 셋째 자리**에 배치하면 일본소설의 기호 833이 된다. 830을 그대로 둔 채 소수점 뒤에 3을 붙이는 방식이 아니다.

시대: 현대(-6): 일본소설을 시대에 따라 세분할 때 현대를 나타내는 기호 6을 적용한다. **문학형식으로 구분한 833 뒤에** 시대 기호를 붙이고, 셋째 자리 뒤에 소수점을 두면 833.6이 된다. 시대 기호 6을 문학형식 기호 3보다 먼저 배치해서는 안 된다.

조합과정은 830(일본문학) + -3(문학형식: 소설) + -6(시대: 현대) → 833.6으로, ①과 일치한다. ②는 기본기호의 끝자리 0을 잘못 남겼고, ③과 ④는 문학형식과 시대의 적용 순서를 바꾸었다. ④에는 끝자리 0을 그대로 남긴 오류도 있다.

NoteBase

문 3. KDC 제6판의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이를 적용한 『한국의 교육행정과 정책』의 분류기호는?

370 교육학(敎育學) Education 370.1-.9는 표준구분에 따라 세분한다. .9 교육사, 각국 교육 지역구분표에 따라 세분한다. 371 교육정책 및 행정 Policy and administration of education .01 교육정책의 일반이론 .06 교육위원회 .9 교육재정
지역구분표 -11 대한민국(大韓民國) Korea

① 370.911

② 371.0911

③ 371.11

④ 371.911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교육행정과 정책의 주제기호는 **371**이며, 한국에 한정한 내용은 **표준구분 -09 뒤에 대한민국의 지역기호 -11**을 붙여 나타낸다. 371.9는 이미 교육재정에 배정되어 있으므로 지역기호를 붙이는 바탕으로 사용할 수 없다.

NoteBase

구성 요소별 해설

주제기호 371: 『한국의 교육행정과 정책』은 교육학 전반보다 구체적인 **'교육정책 및 행정'**을 다루므로, 제시된 본표의 371을 기본기호로 삼는다. 교육학 전체를 나타내는 370에서 바로 지역을 구분한 370.911과는 주제의 범위가 다르다.

표준구분 -09: 교육정책 및 행정을 특정 지역에 한정하여 다룬다는 점을 표준구분 -09로 나타내어 371.09로 전개한다. 제시된 371.9의 '.9'는 **교육재정이라는 고유한 주제기호**이다. 따라서 371에 곧바로 9와 대한민국 기호를 이어 붙인 371.911은 이 자료의 주제를 나타내지 못한다.

지역기호 -11: 제시된 지역구분표에서 대한민국은 -11이다. 이를 371.09 뒤에 이어 붙이면 **371.0911**이 된다. 지역기호의 앞에 표시한 '-'는 구분표의 보조기호임을 나타내는 표식이므로 최종 분류기호에는 쓰지 않는다. 371.11처럼 대한민국 기호만 바로 붙이면 지역적 구분을 나타내는 표준구분 -09가 빠진다.

주제기호 371에 표준구분 -09와 지역기호 -11을 차례로 합성한 371.0911이므로 ②와 일치한다. 이는 수를 더하는 산술연산이 아니라 각 기호를 정해진 순서로 이어 붙이는 것이다.

NoteBase

문 4. KDC 제6판의 총류 중 주제를 언어별로 구분하기 위해 700(언어)의 항목 전개를 반영하거나 조합하도록 지시된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단, 요목까지만 적용함)

ㄱ. 020
ㄴ. 030
ㄷ. 050
ㄹ. 060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ㄹ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030 백과사전과 050 일반연속간행물은 **한국어·중국어·영어 등 언어별 구분**을 반영하여 전개한다. 060의 아시아·유럽 등은 언어가 아니라 **지역에 따른 구분**이다.

보기별 해설

ㄱ. X: 020은 문헌정보학이다. 요목은 021 도서관행정 및 재정, 022 도서관건축 및 설비, 023 도서관 경영·관리 등 **문헌정보학의 업무·영역**에 따라 전개되므로, 700의 언어별 전개를 반영한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다.

ㄴ. O: 030은 백과사전이다. 031 한국어, 032 중국어, 033 일본어, 034 영어 등으로 나뉘어 **백과사전이 쓰인 언어**에 따라 구분한다. 이는 700에서 710 한국어, 720 중국어, 740 영어 등으로 나누는 언어별 전개를 반영한 것이다.

ㄷ. O: 050은 일반연속간행물이다. 051 한국어, 052 중국어, 053 일본어, 054 영어 등으로 **간행물의 언어에 따라 구분**하므로 해당한다. 다만 050 아래의 모든 요목이 언어명인 것은 아니며, 059에는 연감이 별도로 배정되어 있다.

ㄹ. X: 060은 일반 학회, 단체, 협회, 기관, 연구기관이다. 061 아시아, 062 유럽, 063 아프리카 등으로 전개되므로 구분 기준은 **언어가 아니라 지역**이다. 예를 들어 062의 유럽은 특정 언어를 뜻하지 않는다.

언어별 전개를 반영하는 것은 ㄴ과 ㄷ이며, 이 조합은 ②에 해당한다.

NoteBase

문 5. 각 분류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NDC와 DDC의 주류 순서는 동일하다.
ㄴ. CC의 5개 기본범주 중 Energy는 활동, 작용, 공정 등을 나타낸다.
ㄷ. UDC는 H. La Fontaine과 P. Otlet이 개발한 분류표로 현재는 UDC Consortium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
ㄹ. LCC는 각 권의 분류표가 주제전문가에 의해 개발되고 있어 범위주기가 DDC에 비해 더 상세하게 제시되어 있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ㄴ, ㄷ, ㄹ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LCC는 주제전문가가 각 분류표를 개발하지만, **범위주기는 DDC보다 상세하지 않다**. 주제별 분류표의 전문성과 분류항목의 범위를 설명하는 주기의 상세성을 구별해야 한다.

NoteBase

보기별 해설

ㄱ. X: NDC(일본십진분류법)와 DDC(듀이십진분류법)는 모두 십진식 기호를 사용하지만 **주류의 배열 순서는 다르다**. 예를 들어 NDC의 200은 역사, 800은 언어인 반면, DDC의 200은 종교, 800은 문학이다. 같은 숫자 기호를 사용한다고 같은 주제가 배정되는 것은 아니다.

ㄴ. O: CC(콜론분류법)의 다섯 기본범주는 Personality, Matter, Energy, Space, Time이다. 이 중 **Energy는 활동·작용·공정**처럼 주제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나 과정을 나타낸다. 장소를 나타내는 Space, 시기를 나타내는 Time과 구별된다.

ㄷ. O: UDC(국제십진분류법)는 H. La Fontaine(라 퐁텐)과 P. Otlet(오틀레)이 DDC를 바탕으로 개발한 분류표이다. 현재는 **UDC Consortium이 관리·유지**하며 개정 작업을 담당한다. 개발자와 현재 관리기관의 연결이 모두 맞다.

ㄹ. X: LCC(미국의회도서관분류법)의 각 분류표가 주제전문가에 의해 개발되었다는 부분은 맞지만, 범위주기가 DDC보다 더 상세하다는 부분은 틀리다. 범위주기는 해당 분류항목에 어떤 주제가 포함되는지 그 범위를 설명하는 주기이다. LCC의 범위주기는 **DDC에 비해 설명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평가되므로, '더 상세하게 제시되어 있다'는 표현을 바로잡아야 한다.

옳은 보기는 ㄴ과 ㄷ이므로, 이 둘을 묶은 ②에 해당한다.

NoteBase

문 6. DDC 제23판에서 동일 학문에 속하는 둘 이상의 주제를 다루는 자료를 분류할 때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기호법의 계층구조상 동일한 위치에 있는 '0'과 '1-9' 가운데 선택할 경우, '0'으로 시작되는 세목에 분류한다.

② 두 주제를 동등하게 다루고 있는 자료의 경우, 분류표상 앞에 위치한 주제에 분류한다.

③ 영향이나 인과관계를 다루고 있는 자료의 경우, 영향을 받은 주제 또는 결과에 해당하는 주제에 분류한다.

④ 동일한 상위주제의 세목에 해당하는 셋 이상의 주제를 다루고 있는 자료의 경우, 어느 한 주제를 더 완전하게 다루고 있지 않는 한 이 세목을 포괄하는 첫 번째 상위주제에 분류한다.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기호법의 계층구조상 같은 위치에서 0과 1–9 중 선택할 때는 **0을 피하고 1–9로 시작하는 세목**에 분류한다. ①은 이러한 '0의 규칙'을 반대로 설명했다.

선지별 해설

① X: '0의 규칙'은 기호법의 계층구조상 동일한 위치에서 0과 1–9 중 선택할 수 있으면 **0으로 시작하는 세목을 피하는** 원칙이다. 따라서 '0으로 시작되는 세목'을 '1–9로 시작되는 세목'으로 고쳐야 한다.

② O: 두 주제를 동등하게 다루고 어느 한 주제를 다른 주제의 도입이나 설명에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선행주제 우선의 원칙'을 적용한다. 별도 분류 지시가 없다면 **분류표에서 앞에 오는 주제**에 분류하며, 책의 제목이나 본문에서 먼저 언급된 주제를 고르는 것은 아니다.

③ O: '적용의 원칙'에 따라 영향이나 인과관계를 다루는 자료는 **영향을 받은 주제 또는 결과에 해당하는 주제**에 분류한다. 예를 들어 A가 B에 미친 영향을 다룬다면 B에 분류하며, 이 원칙은 선행주제 우선의 원칙보다 우선한다.

④ O: '셋의 원칙'은 동일한 상위주제에 속하는 세목 셋 이상을 다루고 **어느 한 주제도 더 비중 있게 다루지 않는 경우**에 적용한다. 이때 특정 세목 하나를 고르지 않고, 해당 세목들을 모두 포함하는 가장 가까운 상위주제에 분류한다.

NoteBase

문 7. DDC 제23판을 적용하여 다음을 분류할 때, 분류표에 배치된 기호의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ㄱ. 스페인어 기초 문법
ㄴ. 제주도방언연구
ㄷ. 독일어 어원 연구
ㄹ. 바르셀로나 지방의 방언 연구
ㅁ. 일본어 문법 해설

① ㄱ → ㄹ → ㄷ → ㅁ → ㄴ
② ㄱ → ㄹ → ㅁ → ㄴ → ㄷ
③ ㄷ → ㄱ → ㄹ → ㅁ → ㄴ
④ ㄷ → ㄱ → ㄹ → ㄴ → ㅁ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DDC에서는 어원·문법·방언이라는 세부 주제보다 **언어별 분류기호를 먼저 비교**한다. 같은 스페인어에서는 문법 465가 방언 467 계열보다 앞서며, 일본어 495.6 계열은 한국어 495.7 계열보다 앞선다.

올바른 순서

ㄷ → ㄱ → ㄹ → ㅁ → ㄴ

ㄷ. 독일어 어원 연구: 독일어의 어원은 432에 분류한다. 독일어가 속한 430대는 스페인어가 속한 460대보다 앞서므로 가장 먼저 배치한다.

ㄱ. 스페인어 기초 문법: 스페인어 문법은 465에 분류한다. 독일어 어원 432보다 뒤에 오며, 같은 스페인어 안에서는 **문법 465가 방언 467 계열보다 앞선다**.

ㄹ. 바르셀로나 지방의 방언 연구: 이 문항에서는 스페인어의 지역 방언을 다루는 자료로 분류하므로 467 계열에 해당한다. 스페인어 문법 465보다 뒤에 오고, 일본어가 속한 495.6 계열보다 앞에 온다.

ㅁ. 일본어 문법 해설: 일본어의 기본기호 495.6에 언어공통구분표의 문법 기호 -5를 붙여 495.65로 분류한다. 스페인어 방언보다 뒤에 오지만, **일본어 495.6 계열은 한국어 495.7 계열보다 앞선다**.

ㄴ. 제주도방언연구: 한국어의 기본기호 495.7에 언어공통구분표의 방언 기호 -7을 적용하는 495.77 계열에 분류한다. 일본어 문법 495.65보다 분류기호가 뒤에 있으므로 마지막에 배치한다.

NoteBase

문 8. DDC 제23판의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이를 적용하여 물리학자의 전기인 『퀴리부인의 발자취』의 분류기호로 옳은 것만을 묶은 것은?

530 Physics
.02 Miscellany
.1 Theories and mathematical physics
.4 States of matter

920 Biography, genealogy, insignia
Class biography of people associated with a specific subject with the subject, plus notation 092 from Table 1, e.g., biography of chemists 540.92
(Option B: Class individual biography in 92 or B; class collected biography in 92 or 920 undivided)
(Option C: Class individual biography of men in 920.71; class individual biography of women in 920.72)

① 530.092, 92, 920.72
② 530.92, 92, 920.71
③ 530.92, B, 920.72
④ 530.092, B, 920.71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물리학자의 전기는 물리학 기호 530에 **전기 표준구분 092**를 붙여 530.092로 분류한다. Option C를 적용하면 **여성 개인전기인 920.72**에 해당한다.

NoteBase

구성 요소별 해설

기본 분류: 특정 주제와 관련된 인물의 전기는 해당 주제에 분류하고 제1표의 전기 표준구분 092를 덧붙인다. 문제에서 『퀴리부인의 발자취』를 물리학자의 전기로 제시했으므로 주제 기호는 530이다. 물리학은 .02가 잡저인 것처럼 표준구분을 .01~.09에 전개하므로 **0을 유지한 530.092**가 된다. 제시된 화학자 전기의 예인 540.92를 보고 물리학도 530.92로 만들면 안 된다.

Option B: 개인전기는 **92 또는 B**로 분류할 수 있다. 『퀴리부인의 발자취』는 한 인물의 전기이므로 두 기호 모두 이 별법에서 허용된다. 따라서 선지에 B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묶음을 배제할 수는 없다.

Option C: 개인전기를 성별에 따라 구분하여 남성은 920.71, 여성은 920.72에 분류한다. 퀴리부인은 여성이므로 **920.72**를 적용하며, 920.71은 이 자료에 맞지 않는다.

기본 분류와 두 별법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묶음은 ①의 '530.092, 92, 920.72'이다.

NoteBase

문 9. KDC 제6판과 DDC 제23판에서 밑줄 친 분류기호의 의미가 다른 것은?

① KDC 제6판: 081.4, DDC 제23판: 052

② KDC 제6판: 071.1, DDC 제23판: 915.19

③ KDC 제6판: 808.3, DDC 제23판: 808.3

④ KDC 제6판: 748, DDC 제23판: 428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KDC 748의 8은 **방언(사투리)**을, DDC 428의 8은 **표준어 사용·응용언어학**을 나타낸다. 숫자는 같지만 구분하는 언어학적 측면이 다르다.

선지별 해설

① KDC 081.4의 밑줄 친 4와 DDC 052의 밑줄 친 2는 모두 **영어**를 나타낸다. KDC에서는 개인의 일반전집을 언어별로 세분한 부분이고, DDC에서는 일반 연속간행물을 언어별로 구분한 부분이다. 기호는 다르지만 지시하는 언어는 같다.

② KDC 071.1의 밑줄 친 1.1과 DDC 915.19의 밑줄 친 5.19는 모두 **한국이라는 지역**을 나타낸다. KDC에서는 신문·저널리즘 분야에, DDC에서는 지리 분야에 적용되지만 밑줄 친 부분의 지역적 의미는 같다.

③ KDC 808.3과 DDC 808.3의 밑줄 친 3은 모두 문학형식인 **소설**을 나타낸다. KDC의 전체 기호는 소설 전집을, DDC의 전체 기호는 소설의 수사학·창작법을 가리킨다. 전체 기호가 나타내는 주제는 달라도 밑줄 친 부분이 지시하는 문학형식은 같다.

④ KDC 748의 밑줄 친 8은 언어공통구분의 **방언(사투리)**을 나타내므로 748은 영어 방언에 해당한다. DDC 428의 밑줄 친 8은 제4보조표의 **표준어 사용·응용언어학**을 나타내므로 428은 표준 영어의 사용을 다룬다. DDC에서 영어의 방언 등 언어적 변이는 427에 분류한다.

밑줄 친 부분의 의미가 서로 다른 것은 방언과 표준어 사용을 짝지은 ④이다.

NoteBase

문 10. Cutter–Sanborn 세 자리 저자기호표의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이를 적용한 『The Stories of Unbelievable Experiences』 (by Edwards Hemington)의 도서기호는?

24 Edm Gilm 486 Helw
25 Edw Gilman 487 Hem
26 Edwards Gilmo 488 Heme
27 Ef Gilp 489 Hemm
28 Eg Gim 491 Hemp

① E26s
② E26t
③ H488s
④ H488t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저자기호는 이름 Edwards가 아니라 **성 Hemington**을 기준으로 하므로 H488을 쓴다. 서명기호는 **관사 The를 제외한 Stories**의 첫 글자 s이다.

구성 요소별 해설

성의 첫 글자 H: 서양인 저자의 저자기호는 성을 기준으로 부여한다. Edwards Hemington에서 Edwards는 이름이고 Hemington이 성이므로, 성의 첫 글자를 대문자로 쓴 H를 사용한다. **이름 Edwards의 E를 사용하지 않는다**.

표에서 찾는 숫자 488: 성 전체를 알파벳순으로 대조한다. Hemington은 Heme 뒤, Hemm 앞에 놓인다. 표의 두 항목 사이에 해당하는 성은 **앞 항목의 숫자**를 적용하므로, Heme의 488을 취한다. 성의 첫 글자 H와 결합한 저자기호는 H488이다.

서명기호 s: 같은 저자의 서로 다른 저작을 구별하도록 저자기호 뒤에 서명기호를 붙인다. 서명 첫머리의 **관사 The는 제외**하므로, 'The Stories of Unbelievable Experiences'에서는 Stories의 첫 글자를 소문자로 쓴 s를 사용한다. The에서 딴 t를 붙이지 않는다.

H와 488, 서명기호 s를 결합하면 H488s가 되며, 이는 ③의 도서기호와 일치한다.

NoteBase

문 11. KCR 제4판과 KORMARC 형식(통합서지용, 2014 개정판)을 적용하여 다음 자료에 대한 서지레코드를 작성할 때, 필드의 기술이 옳은 것은? (단, 지시기호와 띄어쓰기, 필드종단기호는 적용하지 않음)

<표제면>

메이즈 러너 시리즈 제Ⅱ권

스코치 트라이얼

제임스 대시너 지음
공보경 옮김

㈜문학수첩

<판권기>

Original Title: Scorch Trials

스코치 트라이얼

2012년 7월 5일 초판 1쇄 발행
2014년 8월 1일 초판 2쇄 발행

지은이: 제임스 대시너
옮긴이: 공보경
펴낸곳: ㈜문학수첩
주 소: (413120) 경기도 파주시 회동길 192

ISBN 978-89-839-2449-0 정가 14,800원

① 022 ▼a978-89-839-2449-0 : ▼c₩14800

② 245 ▼a스코치 트라이얼 = ▼xScorch trials / ▼d제임스 대시너 지음, ▼e공보경 옮김

③ 260 ▼a파주 : ▼b문학수첩, ▼c2014

④ 490 ▼a메이즈 러너 시리즈 ; ▼v제2권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표제면의 '메이즈 러너 시리즈'는 **총서명**이고 '제 II 권'은 그 총서 안의 **권차**이다. 490 필드의 ▼a에 총서명을, ▼v에 권차를 넣으며 로마숫자 II 는 아라비아숫자 2로 기술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판권기에 제시된 번호는 국제표준도서번호인 ISBN이므로 **022가 아니라 020 필드**에 기술한다. 022는 국제표준연속간행물번호인 ISSN을 위한 필드이다. ISBN의 하이픈은 입력하지 않으며, 가격은 020 필드의 ▼c에 넣는다. 따라서 '020 ▼a9788983924490 : ▼c￦14800'으로 고친다.

② X: 판권기에 'Original Title'로 표시된 'Scorch Trials'는 번역서의 **원표제**이다. 245 필드의 ▼x는 대등표제를 위한 것이므로, 이 원표제는 246 필드의 ▼a에 따로 기술한다. 또한 지은이와 옮긴이는 역할이 다른 책임표시이므로 쉼표가 아니라 쌍반점(;)으로 구분한다. 표제와 책임표시사항은 '245 ▼a스코치 트라이얼 / ▼d제임스 대시너 지음 ; ▼e공보경 옮김'으로, 원표제는 '246 ▼aScorch trials'로 기술한다.

③ X: 판권기의 2012년 7월 5일은 초판 1쇄 발행일이고, 2014년 8월 1일은 초판 2쇄 발행일이다. **같은 판의 쇄만 달라진 경우**에는 해당 판이 처음 발행된 해를 발행년으로 삼으므로 ▼c는 2014가 아니라 2012로 고친다. 따라서 '260 ▼a파주 : ▼b문학수첩, ▼c2012'로 기술한다.

④ O: 490은 총서사항을 기술하는 필드이며, ▼a에는 총서표제를, ▼v에는 총서번호를 넣는다. 표제면의 '메이즈 러너 시리즈'가 총서명이고 '제 II 권'이 권차이므로, **II 를 2로 바꾸어** '490 ▼a메이즈 러너 시리즈 ; ▼v제2권'으로 기술한다.

NoteBase

문 12. 녹음자료를 대상으로 KCR 제4판과 KORMARC 형식(통합서지용, 2014 개정판)을 적용한 서지레코드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표시기호로 옳은 것은? (단, 지시기호와 띄어쓰기, 필드종단기호는 적용하지 않음)

245 ▼a굿풍류▼h[녹음자료] /▼d국립국악원 민속악단 연주
(㉠) ▼a피리: 최경만, 황광엽 ; 대금: 길덕석, 원완철 ; 해금: 김정림, 김지희 ; 거문고: 원장현, 한인택 ; 아쟁: 김영길, 윤서경 ; 장고: 김청만
(㉡) ▼a2005년 11월 24일 국립국악원 민속악단 정기 연주회의 공연 실황 녹음

① ㉠: 508
㉡: 518
② ㉠: 508
㉡: 546
③ ㉠: 511
㉡: 518
④ ㉠: 511
㉡: 546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악기별로 누가 연주했는지를 밝힌 ㉠은 **511 연주자와 배역진 주기**에 해당한다. 공연 실황을 언제 녹음했는지 설명한 ㉡은 **518 촬영/녹음 일시와 장소 주기**에 해당한다.

빈칸별 해설

㉠: 511. '피리: 최경만, 황광엽', '대금: 길덕석, 원완철' 등은 악기와 그 악기를 연주한 사람을 연결한 내용이다. 녹음자료의 **연주자에 관한 사항**은 511 '연주자와 배역진 주기'에 기술한다. 508 '제작진 주기'는 각본·촬영 등 제작에 참여한 인물의 역할을 기록하는 필드이므로, 이 연주자 명단에 적용하지 않는다.

㉡: 518. '2005년 11월 24일 국립국악원 민속악단 정기 연주회의 공연 실황 녹음'은 **녹음과 관련된 일시와 행사**를 설명한다. 공연이나 방송의 녹음·촬영과 관련된 일시와 장소는 518 '촬영/녹음 일시와 장소 주기'에 기술하며, 제시문처럼 ▼a에 서술형으로 기록할 수 있다. 546 '언어주기'는 자료에 사용된 언어 등을 설명하는 필드이므로, 녹음 일시를 적는 이 항목에는 맞지 않는다.

㉠에 511, ㉡에 518을 대응시킨 조합은 ③이다.

NoteBase

문 13. KORMARC 형식(통합서지용, 2014 개정판)으로 작성한 서지 레코드의 일부이다. ㉠ ~ ㉢에 들어갈 주제명부출표목의 표시 기호로 옳은 것은? (단, 주제명부출표목의 체계는 국립중앙도서관 주제명표에 따르는 것으로 한다)

245	10	▼a꽃으로 피기보다 새가 되어 날아가리 :▼b김만덕 일대기 /▼d정창권 지음
260		▼a서울 :▼b푸른숲,▼c2006
(㉠)	8	▼a여성 인물
(㉡)	8	▼a제주▼x역사
(㉢)	18	▼a김만덕▼v전기

① ㉠: 630, ㉡: 610, ㉢: 650

② ㉠: 630, ㉡: 651, ㉢: 650

③ ㉠: 650, ㉡: 610, ㉢: 600

④ ㉠: 650, ㉡: 651, ㉢: 600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주제명부출표목은 ☒a에 적힌 주표목의 유형에 따라 표시기호를 정한다. '여성 인물'은 **일반주제명**, '제주'는 **지명**, '김만덕'은 **개인명**이므로 각각 650·651·600을 사용한다.

NoteBase

빈칸별 해설

주제명부출표목은 자료가 다루는 주제에 따라 검색할 수 있도록 부여하는 표목이다. 표시기호는 ☒a에 적힌 주표목의 유형을 기준으로 구분한다. 세 필드의 제2지시기호 8은 문제의 조건처럼 국립중앙도서관 주제명표를 따랐음을 나타낸다.

㉠ 650: '여성 인물'은 특정한 한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인물의 범주를 나타내는 **일반주제명**이다. 따라서 '주제명부출표목－일반주제명'인 650을 사용한다. 630은 통일표제를 주제로 기술할 때 사용하는 표시기호이므로 여기에 맞지 않는다.

㉡ 651: '제주'는 **지명**이므로 '주제명부출표목－지명'인 651을 사용한다. 뒤의 ☒x역사는 제주에 관한 주제를 역사로 한정하는 일반세목이다. '역사'가 붙어도 주표목이 지명이라는 성격은 유지된다. 610은 단체명을 주제로 기술할 때 사용하므로 구별해야 한다.

㉢ 600: '김만덕'은 자료가 다루는 특정 개인의 이름이므로 '주제명부출표목－개인명'인 600을 사용한다. ☒v전기는 그 개인에 관한 자료의 형식을 나타내는 **형식세목**이다. 김만덕은 이 책의 저자가 아니라 전기의 대상 인물이며, 일반주제명을 기술하는 650과 구별된다.

㉠ 650, ㉡ 651, ㉢ 600의 조합은 ④에 해당한다.

NoteBase

문 14. KCR 제4판을 적용할 때, 자료에 나타난 각 기술요소의 서지 기술이 옳은 것은? (단, 띄어쓰기는 적용하지 않음)

① 판권기에 “檀紀4278年, 昭和20年”으로 나타남
발행년도에 → 檀紀4278[昭和20]

② 표제면에 “무애 양주동 박사 지음”으로 나타남
책임표시에 → 양주동 박사 지음

③ 표제프레임에 “아리랑(1926년 개봉작)”으로 나타남
자료유형표시에 → [영상자료]

④ 용기에 “CD-ROM 1매”로 나타남
특정자료종별과 수량에 → 전자 광디스크 (CD-ROM) 1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CD-ROM의 특정자료종별은 **'전자 광디스크'**로 적고, 알려진 포맷인 **'CD-ROM'을 원괄호 안에** 덧붙인다. 여기에 수량 '1매'를 이어 적으면 '전자 광디스크 (CD-ROM) 1매'가 된다.

선지별 해설

① X: 서기가 포함되지 않은 여러 기년이 함께 표시되어 있으면 **처음에 표시된 기년만 채택**하고 나머지는 생략한다. 채택한 기년은 그대로 적되, 이를 서력으로 환산한 연도를 각괄호 안에 보충한다. 따라서 '檀紀4278年, 昭和20年'은 '檀紀4278[1945]'로 기술한다. '年'은 생략하며, 각괄호에 넣을 것은 또 다른 연호인 '昭和20'이 아니라 환산한 서력 연도이다.

② X: 성과 이름이 모두 제시된 개인명에 덧붙은 **호와 학위 등의 칭호는 생략**한다. '무애'는 호이고 '박사'는 학위에 따른 칭호이므로 둘 다 빼고, 저작 역할을 나타내는 '지음'은 유지하여 '양주동 지음'으로 기술한다. 호만 생략하고 '박사'를 남긴 선지의 표기는 부적절하다.

③ X: 제시된 영화의 자료유형표시는 **'[영화]'**로 기술한다. '영상자료'는 움직이는 영상을 담은 자료를 넓게 가리키는 말이지만, 이 경우 KCR 제4판에서 사용하는 자료유형표시 용어를 대신할 수 없다. 따라서 '아리랑'의 자료유형표시를 '[영상자료]'로 적은 부분을 '[영화]'로 고친다.

④ O: CD-ROM은 전자 광디스크에 해당한다. 특정자료종별을 '전자 광디스크'로 적고, **특정 포맷을 알 수 있으면 원괄호 안에 부기**한 다음 수량을 적는다. 따라서 용기에 'CD-ROM 1매'로 표시된 자료는 '전자 광디스크 (CD-ROM) 1매'로 기술한다. '전자 광디스크'는 자료의 종류, '(CD-ROM)'은 포맷, '1매'는 수량을 나타낸다.

NoteBase

문 15. KCR 제4판과 KORMARC 형식(통합서지용, 2014 개정판)을 적용하여 다음 연속간행물에 대한 서지레코드를 작성할 때, 옳지 않은 것은? (단, 지시기호와 띄어쓰기, 필드종단기호는 적용하지 않음)

◯ 본표제는 『統一問題硏究』임
◯ 제1권 (1989년 봄)부터 제20권 (1993년 겨울)까지는 국토통일원에서, 제21권 (1994년 봄)부터 현재까지는 平和問題硏究所에서 발행함
◯ 제1권 (1989년 봄)부터 제24권 (1994년 겨울)까지는 1년에 4회(계간), 제25권 (1995년 6월)부터 현재까지는 1년에 2회(반년간) 발행됨
◯ 대외비자료로 일반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함

① 260 ▼a서울 : ▼b국토통일원 : ▼b平和問題硏究所, ▼c1989-
② 321 ▼a계간, ▼b제1권 (1989년 봄)-제24권 (1994년 겨울)
③ 362 ▼a제1권 (1989년 봄)-
④ 506 ▼a대외비자료임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국토통일원과 平和問題硏究所는 함께 발행한 기관이 아니라 시기에 따라 바뀐 발행처이다. 따라서 한 260 필드에서 ▼b를 반복해 나란히 적지 않고, **260 필드를 반복하여 최초 발행처와 현행 발행처를 구분**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260은 발행·배포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필드이고, ▼b는 발행처를 나타낸다. 국토통일원은 제1권 (1989년 봄)부터 제20권 (1993년 겨울)까지, 平和問題硏究所는 제21권 (1994년 봄)부터 발행했으므로 두 기관은 공동 발행처가 아니다. 이처럼 발행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260 필드를 반복하여 발행사항의 순차를 구분**한다. 최초 발행사항은 '260 ▼a서울 : ▼b국토통일원, ▼c1989-'로 기록하고, 平和問題硏究所는 별도의 260 필드에 현행 발행처로 기록한다. 변경된 발행사항의 적용 범위는 ▼3에 제21권 (1994년 봄)부터임을 표시할 수 있다. '1989-'는 이 연속간행물이 1989년에 창간되어 계속 간행 중이라는 뜻이다.

② O: 321은 **이전 간행빈도**를 기록하며, ▼a에는 그 빈도, ▼b에는 해당 빈도가 시행된 기간을 적는다. 제1권 (1989년 봄)부터 제24권 (1994년 겨울)까지는 연 4회인 계간이었으므로 선지의 빈도와 기간이 지문에 부합한다. 제25권 (1995년 6월)부터의 현재 간행빈도인 반년간은 310 필드에 기록하며, 321은 이 현재 간행빈도와 함께 사용한다.

③ O: 362는 연속간행물의 권·연차와 연월차 사항을 기록하는 필드이다. ▼a에 창간 권호차와 연월차를 적고, **계속 간행 중이면 그 뒤에 붙임표(-)**를 둔다. 이 자료는 제1권 (1989년 봄)에 창간되어 현재까지 발행되고 있으므로 '362 ▼a제1권 (1989년 봄)-'로 기록한다.

④ O: 506은 자료에 대한 **접근·이용 제한**을 기록하는 필드이며, ▼a에는 이용제한사항을 적는다. 지문에서 대외비자료로 일반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한다고 했으므로 '506 ▼a대외비자료임'으로 기록할 수 있다.

NoteBase

문 16. <보기 1>과 <보기 2>는 서지적으로 관련 있는 자료이다. KORMARC 형식(통합서지용, 2014 개정판)을 적용하여 해당 자료와 관련 자료 사이의 서지적 관계를 기술할 때, ㉠과 ㉡에 들어갈 연관저록 필드는? (단, 지시기호와 띄어쓰기, 필드종단기호는 적용하지 않음)

<보기 1>
245 ☒a국회도서관 / ☒d국회도서관 [편]
260 ☒a서울 : ☒b국회도서관, ☒c2011-
(㉠) ☒t국회도서관보 ☒g제1권 제1호 (1964년 4월)-제48권 제8호 (2011년 8/9월)
<보기 2>
245 ☒a국회도서관보 / ☒d국회도서관 [편]
260 ☒a서울 : ☒b국회도서관, ☒c1964-2011
(㉡) ☒t국회도서관 ☒g제48권 제9호 (2011년 10월)-

① ㉠: 760, ㉡: 762
② ㉠: 765, ㉡: 767
③ ㉠: 770, ㉡: 772
④ ㉠: 780, ㉡: 785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국회도서관보'가 '국회도서관'으로 표제를 바꾸어 이어진 관계이다. 새 표제의 레코드에서 이전 자료를 연결할 때는 **780 선행저록**을, 이전 표제의 레코드에서 뒤를 잇는 자료를 연결할 때는 **785 후속저록**을 사용한다.

NoteBase

빈칸별 해설

연관저록 필드는 각 레코드에서 기술하는 자료를 기준으로 관련 자료와의 관계를 나타낸다. 245 필드의 표제와 연관저록 ☒t의 표제를 구분하고, 발행 시기와 권연차로 선후관계를 확인한다.

㉠ 780 선행저록: <보기 1>의 245 필드에 기재된 자료는 2011년부터 발행된 '국회도서관'이다. ㉠의 ☒t에는 이보다 앞선 '국회도서관보'가, ☒g에는 제1권 제1호(1964년 4월)부터 제48권 제8호(2011년 8/9월)까지가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은 현재 기술하는 자료의 **직접적인 선행자료**를 연결하는 780 필드이다.

㉡ 785 후속저록: <보기 2>의 245 필드에 기재된 자료는 1964~2011년에 발행된 '국회도서관보'이다. ㉡의 ☒t에는 뒤를 잇는 '국회도서관'이, ☒g에는 제48권 제9호(2011년 10월)부터의 권연차가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은 현재 기술하는 자료의 **직접적인 후속자료**를 연결하는 785 필드이다.

따라서 ㉠은 780, ㉡은 785로, ④의 조합과 일치한다.

NoteBase

문 17. ISBD 통합판(2011)의 기술영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제1영역은 본표제, 대등표제, 표제관련정보, 책임표시를 포함한다.

② 제5영역은 자료기술 영역으로 지도자료의 축척표시와 경위도 등을 포함한다.

③ 제8영역은 자원식별자, 등록표제, 입수조건 등을 포함한다.

④ 기술영역은 모두 9개 영역으로 구분되어 있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지도자료의 축척표시와 경위도는 **제3영역의 지도자료 수치데이터**에 해당한다. 제5영역인 자료기술 영역에는 자료의 수량, 기타 물리적 특성, 크기, 딸림자료 등을 기록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제1영역은 '표제와 책임표시 영역'이다. 자료의 주된 제목인 본표제, 다른 언어나 문자로 나타낸 대등표제, 표제를 보충하는 표제관련정보, 저자 등 자료의 내용에 책임을 지는 주체를 나타내는 책임표시를 포함한다.

② X: 제5영역이 자료기술 영역이라는 점은 맞지만, **축척표시와 경위도는 제3영역**에 기록한다. 제3영역은 자료 또는 자원 유형별 특성 영역으로, 지도자료의 축척·도법·좌표 같은 수치데이터를 다룬다. 제5영역은 자료의 수량, 기타 물리적 특성, 크기, 딸림자료를 기술하므로 지도의 축척과 지도 자체의 물리적 크기를 구별해야 한다.

③ O: 제8영역은 '자원식별자와 입수조건 영역'이다. ISBN·ISSN 같은 자원식별자, 계속자료의 등록표제, 가격 등 입수조건을 포함한다. 여기의 등록표제는 일반적인 자료의 제목을 기록하는 제1영역의 표제와 구별된다.

④ O: ISBD 통합판(2011)은 **제0영역부터 제8영역까지** 총 9개 영역으로 구성된다. 제0영역은 내용형식과 매체유형을 기록하는 영역이므로 제1영역부터 세어 8개라고 판단하면 이를 빠뜨리게 된다.

NoteBase

문 18. KCR 제4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표목의 선정과 형식은 전거에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목록규칙에서는 이를 제외하였다.
ㄴ. 기술대상자료가 복제본이고 원본의 표제와 복제본의 표제가 다른 경우, 원본의 표제를 본표제에 기술한다.
ㄷ. 복합매체자료(예: 어학교육용 녹음자료와 텍스트)는 주된 매체를 기술의 대상으로 한다.
ㄹ. 자료의 으뜸정보원에서 옮겨 적은 서지적 문구는 해당 자료에 쓰여진 그대로의 띄어쓰기를 원칙으로 하되, 이 원칙을 적용한 결과 오히려 의미 파악이 모호한 경우에는 띄어쓰기 관용을 허용한다.

① ㄱ, ㄴ
② ㄱ, ㄴ, ㄷ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ㄹ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복제본을 기술할 때는 원본이 아니라 **복제본 자체의 표제**를 본표제로 삼는다. 원본과 복제본의 표제가 다르더라도 원본의 표제로 바꾸어 기술하지 않는다.

보기별 해설

ㄱ. O: KCR 제4판은 표목의 선정과 형식을 목록규칙에서 직접 규정하지 않고 **전거에서 처리**하도록 하였다. 전거는 저자명이나 표제 등 접근점의 형식을 관리하고, 같은 대상을 가리키는 서로 다른 표현을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ㄴ. X: 복제본의 서지기술은 **복제본 자체를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원본과 복제본의 표제가 다르면 복제본의 표제를 본표제에 기술하고, 원본의 표제는 주기사항에 기술한다.

ㄷ. O: 복합매체자료는 여러 매체가 함께 구성된 자료로, 그중 **주된 매체를 기술의 대상**으로 한다. 예를 들어 어학교육용 녹음자료와 텍스트 중 녹음자료가 주된 매체라면 녹음자료를 중심으로 기술한다.

ㄹ. O: 으뜸정보원에서 옮겨 적는 서지적 문구는 자료에 나타난 띄어쓰기를 그대로 따르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그대로 옮겼을 때 **의미 파악이 모호해지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띄어쓰기 관용을 적용할 수 있다.

옳은 보기는 ㄱ·ㄷ·ㄹ이며, 이 조합은 ③에 해당한다.

NoteBase

문 19. 더블린코어 메타데이터 요소와 그 한정어(인코딩 스킴)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① Subject - LCSH

② Format - IMT

③ Identifier - URI

④ Date - DCMI Type Vocabulary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DCMI Type Vocabulary는 날짜가 아니라 **자원의 유형(Type)**을 나타내는 통제어휘이다. Date에는 날짜·시간 표기 규칙인 **W3C-DTF**나 기간을 표현하는 DCMI Period를 연결한다.

선지별 해설

인코딩 스킴은 메타데이터 요소의 값을 어떤 통제어휘나 표기 규칙에 따라 작성하고 해석할지를 정한다. 각 스킴이 표현하는 정보가 해당 요소의 의미와 맞는지 살펴야 한다.

① O: Subject는 자원이 다루는 주제를 나타내는 요소이다. LCSH는 미국 의회도서관 주제명표목표로, **주제를 일관된 용어로 표현**할 수 있게 하는 통제어휘이므로 Subject의 인코딩 스킴에 해당한다.

② O: Format은 자원의 파일 형식이나 물리적 매체 등을 나타내는 요소이다. IMT는 인터넷 미디어 유형으로, application/pdf처럼 **파일의 형식을 식별**하는 값을 제공하므로 Format과 연결된다.

③ O: Identifier는 특정 자원을 식별하기 위한 요소이다. URI는 통일 자원 식별자로, **자원을 식별하는 문자열의 표기 체계**이므로 Identifier의 인코딩 스킴으로 사용된다.

④ X: Date는 자원의 생성·발행·수정 등 생애주기와 관련된 날짜나 기간을 나타내는 요소이다. DCMI Type Vocabulary는 Text, Image 등 **자원의 성격이나 장르를 구분**하는 어휘이므로 Date가 아니라 Type과 연결된다. Date의 인코딩 스킴으로는 날짜·시간 표기 규칙인 W3C-DTF와 기간을 표현하는 DCMI Period가 있다.

NoteBase

문 20. RDA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RDA는 FRBR, FRAD, FRSAD 모형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② RDA는 ISBD의 구분기호와 요소 배열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구문적 측면과 의미적 측면의 규칙을 함께 다루고 있다.

③ RDA에서는 AACR2R에서 사용해 온 자료유형표시 대신에, 자료의 물리적 측면인 매체유형과 수록매체유형, 그리고 내용적 측면인 내용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④ RDA에서는 접근점을 특정 저작, 표현형, 개인, 가족, 단체를 나타내는 이름, 용어, 부호 등으로 정의하고, 전거형 접근점과 이형 접근점으로 구분하고 있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RDA는 기술할 데이터의 내용과 의미에 관한 규칙을 중심으로 하며, **데이터 기록과 표시 방식을 구분**한다. ISBD의 구분기호와 요소 배열은 사용할 수 있지만, **그대로 유지하도록 강제하지 않는다**.

선지별 해설

① O: 기존 RDA는 FRBR·FRAD·FRSAD라는 **개체·관계 중심의 개념모형**을 토대로 한다. FRBR는 서지레코드의 기능요건, FRAD는 전거데이터의 기능요건, FRSAD는 주제전거데이터의 기능요건을 다룬다. 이 모형들은 기술 대상의 속성과 대상 사이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기록하는 바탕이 된다.

② X: RDA는 데이터의 내용과 의미에 관한 규칙을 중심으로 하며, **데이터 기록과 표시 방식을 분리**한다. 구분기호와 요소 배열은 데이터를 어떻게 보여 줄지에 관한 구문적 측면이다. 따라서 'ISBD의 구분기호와 요소 배열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는 'ISBD의 구분기호와 요소 배열을 의무적으로 따르지 않으며'로 고쳐야 한다. RDA로 기록한 데이터를 ISBD 방식으로 표시할 수는 있지만, 그 표시 방식이 필수인 것은 아니다.

③ O: RDA는 AACR2R의 자료유형표시를 대신하여 **내용유형·매체유형·수록매체유형을 구분**한다. 내용유형은 텍스트·음성 등 내용의 표현 형식을, 매체유형은 내용을 이용하는 데 필요한 중개 장치의 유형을, 수록매체유형은 내용이 담긴 물리적 매체의 형식을 나타낸다. 내용의 성격과 그것을 담고 이용하는 물리적 방식을 서로 다른 요소로 기록하는 것이다.

④ O: 접근점은 특정 저작·표현형·개인·가족·단체 등을 나타내는 이름·용어·부호 등이다. **전거형 접근점은 표준화된 형태**로 해당 개체를 나타내고, 이형 접근점은 같은 개체를 나타내는 다른 형태의 접근점이다. 두 접근점은 서로 다른 개체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개체를 여러 표현으로 찾아갈 수 있도록 연결한다.

NoteBase